

광주시, 음식점 316곳 여름철 특별위생점검

보양식·냉식·배달업소 민관합동 교차점검

7월 3일까지 위생 위해요인 사전 차단



식중독 예방 '손보구가세요!' 포스터

/광주광역시 시청 제공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광주지역 음식점 316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기온·습도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보양식·냉식 취급업소와 배달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 위생부서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6개 점검반(총 38명)을 편성해 자치구 간 교차점검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삼계탕·염소탕·매기탕·장어 등 보양식 취급업소 171곳 ▲콩국수·냉면·팔빙수·과일·채소음료 등 냉식 취급업소 49곳 ▲센트럴키친 1곳 ▲팔빙수 등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58곳 ▲미술랭가이드, 블루리본 선정 업소를 비롯한 대중 선호 음식점 37곳 등 총 316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보관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조리시설 관리 상태 ▲냉장·냉동식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제빙기 등 식품취급시설 위생관리 상태 ▲방충·방서시설 관리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및 위생수칙 준수 여부 등이

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5건을 수거해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에 검사해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에 검사해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에 검사해 광주보건환경연구원

기아 PV5 패신저, 2026 오토카 어워즈 '최고의 대형차' 선정

기아가 PV5 패신저가 영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카(Autocar)'가 주관하는 '2026 오토카 어워즈(2026 Autocar Awards)'에서 '최고의 대형차(Best Large Car)' 부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오토카는 PV5 패신저의 신선하고 미래지향적인 스타일링, 예상치 못한 세련된 주행감, 효율성이 돋보이는 실내 레이아웃에 주목하며 E-GMP.S 플랫폼을 기반으로 확보한 동력성과 주행거

리는 물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 전동화 다목적 차량(MPV) 및 경상용차(LCV)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오토카 어워즈 심사위원은 PV5 패신저 모델의 진보적 디자인, 영리한 공간 구성, 뛰어난 상품성을 예로 들며 전동화 상용차의 혁신적인 재해석을 보여주는 뛰어난 사례로 평가했다.

오토카는 1895년 세계 최초로

발간된 자동차 전문지로, 영미권 독자 외에도 온라인판, 국제판 등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진 로드 테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토카 편집장 마크 티쇼(Mark Tisshaw)는 "기아 PV5는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공간 구성으로 뛰어난 이동 경험을 제공하며 주행감도 매우 세련됐

다"며 "특히 뛰어난 가성비와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또 "7인승 및 WAV(Wheelchair Accessible Vehicle) 모델이 곧 출시될 것을 감안하면 PV5는 한동안 패밀리카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아는 PV5에 PBV 전용 전동화 플랫폼 E-GMP.S,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 AAOS 기반 PBV 전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1,000여 개의 고객 시나리오 검증

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한편 오토카는 매년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둔 인물과 제품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유빈 기자

